

# 이론과 실천이 조화된 '여성학' 연구

梨花 한국여성연구소의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시리즈 외

## 여성학 연구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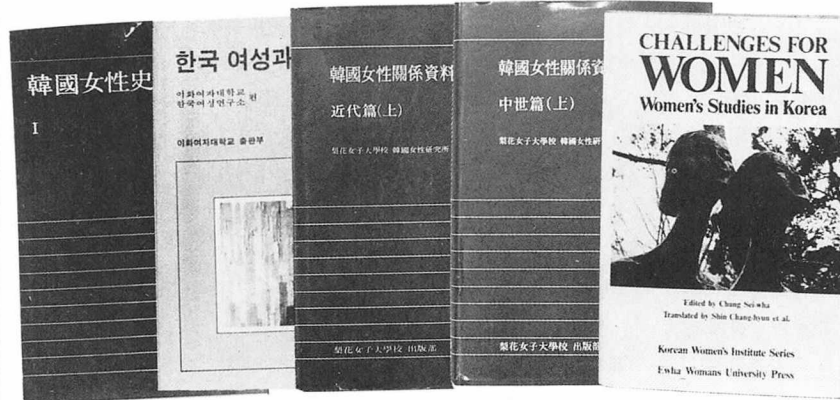
국내에서 여성문제가 새로운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7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처럼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며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 자리잡게 되는데는 이화여자대학교부설 한국여성연구소(소장 정세화교수)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여성연구소는 숙명여대의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1960), 효성여대의 한국여성문제연구소(1970)에 이어 비교적 늦은 1977년에 설립됐다. 그러나 그 뿌리는 좀더 거슬러 올라가, 1968년에 발족된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시작을 해서 그 후신인 한국여성사연구소(1972)와 여성자원연구소(1970)로부터 출발한다. 이 두 연구소를 통폐합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한국여성연구소인데, 설립된 바로 그해 2학기부터 학부선택 교양과목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여성학강좌를 개설했고, 82년에는 대학원에 여성학과를 신설해 학문적인 토양을 다지는 등, 여성학연구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의 위치를 굳히게 됐다.

“현대 여성운동의 제반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며 바람직한 여성지도력을 함양시킨다”는 것이 이 연구소의 설립취지인데, 역사가 일천한 학문으로서 여성학의 이론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와 구체적인 실천운동과도 연결돼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 양쪽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론정립이라는 면에서 이제까지 연구성과로 발표된 저작물로는, 우선 여성연구소가 지난 10여년 동안이나 계속해오고 있는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여성사연구소로부터 출발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작된 이 작업은, 고대부터 최근세까지 여성에 관한 국내문헌자료들을 국역하여 수록함으로써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하는데에 빼놓을 수 없는 초석의 역할을 단단히 해냈다. 지금까지 「고대 삼국시대」 「중세 고려시대(상·중·하)」 「근대편(상·하)」과 영인본 「한말 여성지」 등 7권이 나왔고, 현재 「근세조선시대」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밖에, 각 분야를 망라한 교수연구팀을 구



한국여성연구소에서 내놓은 「한국여성관계자료집」 「한국여성사」를 비롯한 기타 연구서들.

### 역사가 짧은 여성학의

### 이론정립을 위해, 한국여성연구소는

### 여성관계 자료집과 연구저서들을

### 꾸준히 펴내고 있다.

### 여성문제의 현장을 향한

### 연구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 오늘날 여성학연구의

### 선두주자란 위치를 가능케 했다.

성해 '팀티칭'이라는 독특한 교수방법으로 진행되는 여성학강좌의 중심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학」을 편찬해냈고, 구미자료를 집대성한 「여성사회철학」도 펴냈다.

그런가하면, 1982년부터 85년까지는 일터와 가정에서 여성노동력의 역할과 문제점을 총점검하는 작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이 적절한 관심과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 왔을 뿐 아니라,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일터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라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시도였다. 이러한 4년에 걸친 작업 끝에 나온 책이 「한국 여성과 일」.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여성노동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도시의 전문직 여성에서부터 농촌여성의 노동에 관한 사항들을 폭넓게 조망한 이 책은,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1986년 봄 '오늘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여성연구소는 설립초기부터 아시아 여성연구원과 밀접한 교류를 갖는 등, 여성학

연구와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대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86년에 펴낸 영문도서 「Challenges for Women: Women's Studies in Korea」 역시 그러한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개괄하는 한편 여성학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화공보부에 의해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연구소의 정기간행물로는 「여성학논집」이 매년 한권씩 발행되고 있으며, 지난 84년에 창간해서 현재까지 4집이 나왔다.

### 여성문제현장과의 연결 모색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해오고 있는 작업들 중에는 여성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많다.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지양하고, 이론과 실천이 합쳐진 각종 프로젝트개발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상임연구원 박진숙씨는 말한다.

사실 한국여성연구소의 활동은 연구·출판사업과 교육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후자의 구체적인 예가 농촌여성교육, 도시빈민여성교육, 교회여성교육, 농촌여성을 위한 의료봉사, 여성단체 실무자를 위한 여성학 강좌, 복지관운영 등이다.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농촌과 도시의 여성들로 하여금 당면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한국여성연구소의 활동은 상아탑의 울타리를 극복했다는 원론적인 의의를 넘어 상당히 구체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물론 위와같은 교육활동들은 논문자료집으로 속속 발간돼,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

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78년과 79년에 실시한 '농촌여성 및 도시빈민여성교육'이 「새로운 농촌여성」이란 자료집으로 연결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농촌 여성들」 「농촌의 가족관계」 「농촌여성을 위한 법률상식」 「농촌여성의 조직활동」 등을 발간케 되었고, 그밖에도 「한국의 근로여성」 「여성과 자원활동」 「교회여성과 사회발전」 「여성자립을 위한 현장연구 I -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등의 자료집이 발간됐다.

연구소장과 8명의 운영위원교수들을 비롯해 13명의 상임·비상임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여성연구소는, 올해도 빈민지역 어린이를 위한 하나유아원(마포구 염리동 소재 제2사회복지관)과 공부방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왕에 계속해오던 「한국여성관계자료집」의 편찬과 각종 연구보고서의 출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중에 출간될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세조선시대편은 조선시대 법전에 나타난 여성관계자료들을 총정리한 「법전편」 I·II권과 유학·천도교·종교·무속을 중심으로 한 「종교편」, 유학 및 실학 중심의 「사상편」으로 나누어 모두 4권이 출간될 예정으로 있어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도 교수연구진을 새로이 구성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여성학」 이론서를 펴 낼 계획이며, 연구논문으로는 「한국여성사의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연구」 「여성운동과 걸스카우트운동」이 발간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매스컴에 나타난 한국여성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작업에도 현재 7명의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매달리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연구성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박진숙연구원은 말했다.

최근 들어 여성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부쩍 늘면서, 각 대학에서는 여성문제연구소를 활발히 설치하는 추세를 보이는가하면 정부차원에서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치와 함께 여성부 신설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이와같은 관심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속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학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여성연구소의 활동은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큰 기대를 모은다.

—오애리 기자